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3. 19(목), 14:00 ~ 16: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정희, 김창준, 윤균(오심), 이경미,
이정수, 이찬희, 임영애, 전봉희, 천득엽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2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침비 주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공개
3	충주 고구려비 주변 지방도 시설개량 사업	공개
4	밀양 영남루 주변 밀양신협 본점 신축(2차)	공개
5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변경허가 4차)	공개
6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7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숙박시설(본관) 증축(3차)	공개
8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숙박시설(별관) 증축(3차)	공개

【검토사항】

9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0	중요 건축문화재 단청의 과학적 조사 및 분석 검토	공개

【보고사항】

11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우사(퇴비사) 증축 - 안동 봉정사 대웅전 주변 진입로 정비 공사(2차)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명부전 보수(변경허가)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창고(산업자재물류) 신축 -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변 화장실 증축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주변 작업로 개설 및 수목제거 -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방아동천 재해예방사업 -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진입로 벤치 설치 	공개
----	--	----

- 제천 청풍 한벽루 주변 관람편의시설(평상마루) 설치
- 양산 통도사 대응전 및 금강계단 주변 경비실(종합상황실) 정비
(변경허가)
-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창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저온창고 이전
- 논산 쌍계사 대응전 주변 계류보전 사업
- 안동 개목사 원통전 주변 도로선형개량 공사
- 나주 서성문 안 석등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03-001

1.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719-8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77m
 - 사업내용 : 단독주택(4동) 신축
 - 대지면적 : 1,928m²
 - 건축면적(연면적) : 375.68m²(367.6m²)
 - ※ 각 동별 : 93.9m²(91.9m²)
 - 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 / 4.9m

- 구조 : 일반목구조
- 지붕형태 : 경사지붕

라.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장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2.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주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주변에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제2,3,4,6구역 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0
 - 지정일 : 1973. 05. 0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앙동, 고소동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0m 이내
 - 사업내용
 - 오수관로(D200) : 7,127m
 - 굴착공법
 - (2m이상 구간) 간이흙막이 : 1,045m
 - (2m미만 구간) OPEN CUT : 6,082m

- 맨홀설치 : 545개소
- 배수설비 : 751가구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시 전문가 입회, 발굴 종합보고서 제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3. 충주 고구려비 주변 지방도 시설개량 사업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주변에 지방도 시설개량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지방도 시설개량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충주 고구려비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280-11
 - 지정일 : 1981. 03. 1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 충주시 중앙탑면 기흥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5m
 - 사업내용
 - 총 시설개량 L=6.4km, B=10m
 - 교량 설치(1개소) L=70m
 - 평면 교차로 6개소
 - ※ 문화재 주변 분리도로 : L=750m, B=2*6.25m=12.5m
 - 주요사업량 : 흙쌓기=14,348m³(노상:6,596m³, 노체:7,752m³)
 흙깎기=4,011m³(토사:1,890m³, 발파암:2,121m³)

라. 의결사항

- 부결
 - 절·성토량 과다, 현 지형 유지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4. 밀양 영남루 주변 밀양신협 본점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 주변에 밀양신협 본점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밀양신협 본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 이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2.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높이 축소 등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밀양 영남루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중앙로 324(내일동)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내일동 141-1, 143-1, 144, 145-1, 14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0m

○ 사업내용 : 밀양신협 본점 신축

구분	부결안	재심의안	비고
대지면적	528.75m ²		
건축면적	381.65m ²		
연면적	연면적 합계 896.10m ² * 옥상층 제외 · 지상 1층 : 276.25m ² /객장, 영업장, 서고, 상담실, 금고 등 · 지상 2층 : 350.80m ² /회의실, 체력단련실, 문서보관실 등 · 지상 3층 : 269.05m ² /강당, 창고 등 · 옥 탑 층 : 43.64m ² /물탱크실, 계단실		
높이	지상 3층 최고17.30m 전면17.30m	지상 3층 최고16.10m(1.20m 감소) 전면14.60m(2.70m 감소)	옥상시설물 제거 1층0.6m, 2층0.4m, 3층0.2m 감소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주차대수 5대, 지상·옥상 조경면적 26.45m ²	주차대수 5대, 지상·옥상 조경면적 34.46m ²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층 층고 조절 등으로 전체 높이를 낮추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5.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변경허가 4차)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제382호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8.18)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9.22) : 부결
 - 석탑 인근 환경훼손 우려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11.17) : 조건부 가결
 - 2안(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교행로 확포장)으로 시행할 것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8.02.22) : 원안가결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8.09.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8.12.20)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9.01.17)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지형변경, 절성토량 과다, 탑 안정성 저해 등)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허가 심의결과(2019.03.21)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문화재 전면지역으로 노선변경을 권고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리 1420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청량읍 울리 1200-3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2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분	사지인근		사지외곽
'16.8월(보류) <u>현지조사실시</u> '16.9월(부결)	1안	○석탑과 93~153m 이격하여 외곽으로 도로신설	
	2안	○기존도로(폭3~4m)를 확장하여 폭10m 도로 개설	
'16.11월 (조건부 가결)	1안	○석탑과 94~180m 이격하여 외곽으로 도로신설	
	2안	○기존도로(폭3~4m)에 교행로 4개소 확보	○기존도로(폭3~4m)를 확장하여 폭10m 도로 개설
'18.2월 (변경 가결) ※최종가결안	○기존도로(폭3~4m)에 교행로 4개소 확보 및 일부구간 구거 복개·측구 설치(길이 220m, 폭 2.4m, 깊이1.4m)		○기존도로(폭3~4m)를 확장하여 폭10m 도로 개설
'18.9월 (추가변경 부결)	○문화재 북서측 사지 외곽의 도로와 같은 규모(폭10m)로 46m 연장 ○교행로 확보 및 측구 설치는 동일		동일
'18.12월 (추가변경 보류) <u>현지조사실시</u> '19.1월 (추가변경 부결)	○문화재 북서측 사지 외곽의 도로폭(10m)을 감안하여 폭 6.5~10m로 46m 연장 ○교행로 확보 및 측구 설치는 동일		동일

구분	사지인근	사지외곽
'19.3월 (추가변경 부결)	○문화재 북서측 사지 외곽의 도로폭(10m)을 줄여가며 최종 폭 6.5m로 46m 연장 ○교행로 확보 및 측구 설치는 동일 ○기타 안전시설 설치 및 담장 보존	동일
'20.3월 ※금차	○문화재 북서측 사지 외곽의 도로폭(10m)을 줄여가며 최종 폭 6.0~6.2m로 46m 연장 ○교행로 확보 및 측구 설치는 동일 ○기타 안전시설 설치 및 담장 보존	동일

라. 참고자료

- 현지조사의견 (2016.09.01. / 문화재위원 ○○○)
 - 현재 청송사지는 신라시대 3층 석탑이 위치한 동쪽 분지와 조선시대 부도 3기가 보존된 서쪽 분지까지 두 영역의 광범위한 규모로 추정됨.
 - 현재의 진입로는 1차선 정도의 좁은 도로로 석탑에 바로 인접한 마을길이지만, 주말에는 뒷산인 문수산과 문수암으로 오르는 등산객들로 번잡하게 이용되고 있음.
 - 1안 도로는 기존 도로를 10m 폭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석탑 인근의 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2안 도로는 석탑과 부도 사이를 단절하여 사역을 양분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청송사지 전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도로 개설은 지하 유적과 사역 공간을 훼손할 우려가 큼.
 - 따라서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하 유적 훼손을 최소화할 다른 대안이 필요함.
- 현지조사의견 (2018.12.21. / 전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도로 신청부지는 석탑의 배후 지역으로 중심사역의 인근지역에 해당됨.
 - 도로 조성으로 인하여 지형변경과 절성토가 다량 동반되므로 기존의 도로 폭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20년 제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2020.02.19.)
 - 신청내용 : 진입도로 확포장구간 내 유적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
 - 신청대상 :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 등 유적 전체(1,019m²)
 - 신청방안 : 현지보존
 - 확인된 건물지를 따라 모래주머니로 보강하고, 유구 내부는 마사토로 채운 후 토목용 부직포를 덮어 유구 훼손방지 및 보호
 - 유구 상부는 마사토를 이용하여 60cm 이상 성토 후 도로 개설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복토방법(모래 성토 후 마사토) 변경 및 복토·기초공사 시 조사기관 입회 하에 진행

마. 의결사항

- 부결
 - 기존 안에서 개선되지 않고 사고 위험성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6.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국보 제32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번길25(관촉동)
 - 지정일 : 2018. 04.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논산시 관촉동 239-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5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대지면적 : 5,736㎡
 - 건축면적(연면적) : 1,146.99㎡(2,293.98㎡)
 - 규모/최고높이 : 지상2층 / 8.0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지붕형태 : 경사지붕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주진입로이미 규모가 커서 진입부 경관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7.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숙박시설(본관) 증축(3차)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보물 제1565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숙박 시설(본관)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본관)을 증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6.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2.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 지정일 : 2010. 07. 0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4 외 2필지(1282-14, 1282-24)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00m

○ 사업내용

구분	호텔 본동						
	기존	허가현황 (증축)	실제 건축 현황	불법현황	2차 (‘20.2.20.)	금차/ 증축 신청 (양성화)	최종 합계
계(m ²)	6,235.12	1,492.95	2,626.20	+1,133.25	+476.7	+476.7	8,204.77
지하(m ²)	2,275.77	-	-	-	-	-	2,275.77
지상1(m ²)	1,402.77	497.65	656.55	+158.9	+158.9	+158.9	2,059.32
지상2(m ²)	1,278.29	497.65	656.55	+158.9	+158.9	+158.9	1,934.84
지상3(m ²)	1,278.29	497.65	656.55	+158.9	+158.9	+158.9	1,934.84
지상4(m ²)	-	-	656.55	+656.55	철거	철거	-
높이(m)		14.8	19.616	+4.816 (19.616)	+2.513 (17.313)	-0.18 (14.620)	14.620
비 고						* 승강기탑 존치 (+3.66/ 18.460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8.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숙박시설(별관) 증축(3차)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보물 제1565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숙박 시설(별관)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별관)을 증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6.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2.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 지정일 : 2010. 07. 0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2 외 3필지(1282-3, 1282-13, 1282-2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00m

○ 사업내용

구분	호텔 별관 2동(철거 후 증축)						
	기존 (1동)	허가현황 (증축 2동)	실제 건축 현황	불법현황	2차 (‘20.2.20.)	금차/ 증축 신청 (양성화)	최종 합계
계(m ²)	561.03	2,437.42	3,098.41	+660.99	+135.03	+135.03	3,133.48
지하(m ²)	53.07	894.28	890.16	-4.12	-4.12	-4.12	943.23
지상1(m ²)	253.98	521.38	583.13	+61.75	+61.75	+61.75	837.11
지상2(m ²)	253.98	510.88	574.33	+63.45	+63.45	+63.45	828.31
지상3(m ²)	-	510.88	524.83	+13.95	+13.95	+13.95	524.83
지상4(m ²)	-	-	525.96	+525.96	철거	철거	-
높이(m)		15.7	19.445	+3.745 (19.445)	+2.565 (18.265)	-0.902 (14.798)	14.798
비 고						* 승강기탑 존치 (+2.953m/ 18.653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03-009

9.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고창 선운사 만세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북 고창군 소재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만세루」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만세루(禪雲寺萬歲樓)」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500번지)
 - 지정일 : 1974. 09. 27.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고창 선운사 만세루(高敞 禪雲寺 萬歲樓)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 시대/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185.92㎡)
 - 지정면적 : 343.4㎡
 - 구조/형식/형태 : 익공식목구조/ 5량가/ 정9칸, 측2칸/ ‘一’자형/ 맞배지붕
 - 재질 : 목재, 한식기와

라. 현지조사의견(2019.06.25.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6.25	대상문화재	고창 선운사 만세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고창 선운사 만세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3 월 3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고창 선운사 만세루 지정 조사 의견서

1. 고창 선운사 만세루의 연혁

1) 선운사의 연혁

고창군 도솔산(兜率山)에 있는 선운사는 백제 때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하고 있지만 설화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는 못하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1168~1241)가 쓴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는 1200년(고려 신종 3) 3월에 선운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명종 때 문신 김극기와 윤진이 남긴 시도 전하고 있다. 대웅전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좌상의 좌대 하부에 1344년(충혜왕 5)의 간기가 있는 목서가 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선운사는 고려 후기에는 고창 지역 사찰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선운사는 1407년(태종 7) 천태종에 속한 자복사의 하나로 사격을 인정받았다.¹⁾ 이후 사세가 기울어 퇴락했다가 성종 연간에 와서 행호(幸浩)선사 주도로 크게 중창을 이뤄냈다. 선사는 1470년(성종 원년) 초과일에 왕실을 위한 수륙재를 거행하고, 종친 중에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덕원군(德院君)에게 권선문을 받아 왕실 원당으로 사세를 키웠다. 이를 계기로 1483년(성종 14)까지 중창불사를 거듭하여 총 111곳의 전, 당, 문, 요사, 각을 마련한 것으로 전한다.²⁾

사찰의 면모를 일신했던 선운사는 1597년(선조32) 정유재란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각들이 불에 타고 말았다. 이후 승려들이 조금씩 모여들어 오두막집 한두 채를 지어 비바람을 면하다가 여러 해 만에 법당 3칸을 세울 수 있었다. 전란의 여파가 가라앉은 17세기 초에 들어와 사찰의 복구가 시작되었다. 1619년(광해군 11)에는 대웅보전 5칸과 상하 누각, 동서 양실을 세웠다. 현재 선운사의 주불전인 대웅전(보물 제290호)은 이때 지은 건물로서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안에는 소조로 삼세불(비로자나불·아미타불·약사불)을 봉안하고 있다. 이후 17세기 말까지 만세루(1620년), 천왕문(1624년), 시왕전(1658년), 나한전·영자전(1677년) 등을 짓고 18세기 초에는 팔상전(1706년), 각황전(1713년)을 건립하였다. 18세기에 선운사는 89개의 암자와 189개에 이르는 요사가 산중 곳

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 12월 2일.

2) 『도솔산선운사지』(선운사, 2003) 「덕원군별원당선운산선운사중창산세사적형지안(德源郡別願堂禪雲山禪雲寺重創山勢事跡形止案)」에 의함.

덕원군 이서(李曙)는 세조의 후궁 귀인 박씨의 소생으로 1458년(세조 4) 덕원군으로 봉해지고, 1468년(예종 즉위년)에는 남이의 반역을 진압한 공으로 공신 칭호와 자급을 받았다. 성종의 비호 하에 회암사와 원각사 등 여러 사찰의 범회에 참여하였으며, 직접 권선문을 쓰고 자신의 도서(圖書)를 찍어 승려들에게 나누어 주어 불사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게끔 하였다(오경후, 「조선전기 선운사의 중창과 전개」, 『신라문화』33, 2009).

곳에 흩어져 있는 사세를 누린 것으로 전해진다.³⁾

하지만 1751년(영조 27) 가을에 선운사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천불전을 비롯하여 시왕전, 만세루, 요사채와 벽안료 등 오백 여 칸의 건물이 불에 탔다고 한다. 화재의 복구는 화재 직후부터 19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1752년(영조 28)에 만세루와 천불전, 시왕문 등이 재건되고, 1800년(정조 24)에는 극락전 중창, 1821년(순조 21)에는 중층 구조였던 각황전을 단층으로 다시 지어 나갔다.

20세기에 들어와 선운사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본·말사 제도에 따라 백양사의 말사가 되었다. 1924년에는 고창 시내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쳤다. 1945년 광복 이후 주지 김상명이 화주를 맡아 대웅전과 영산전 사이에 향운전을 지었으며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선운사 만세루의 연혁

선운사에 전하는 기록들에 의하면, 만세루는 1620년(광해군 12)에 처음 지었으나 아쉽게도 1751년(영조 27)에 전소되고 이듬해인 1752년(영조 28)에 다시 지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처음에는 중층 누각구조로 지었으나 재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층 건물로 바뀐 것으로 전한다. 또한 처음 당호는 대양루(大陽樓)였고, 재건하면서 그 명칭을 만세루(萬歲樓)로 고쳤다고 한다.

만세루의 창건 기사는 「만세루중수기」(1760년)에서 전하고 있다. 해당 중수기에 의하면, 정유재란으로 선운사가 거의 다 불에 타고 난 후에 사찰을 재건하던 과정에서 1620년(광해군 12) 승려 요의(了義)가 건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만세루 건물에 대해서는 1686년(숙종 12)에 작성한 「선운사 범당·암자·각방의 상용그릇 인계내역기(禪雲寺法堂諸庵各房常用器皿掌緣記)」라는 문건 속에 있는 ‘대양루열기(大陽樓列記)’로 파악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을 옮겨보면, “7칸의 화려한 누각이다. 위에는 법고가 있다. 가히 억만 섬의 곡식을 보관할 수 있다. 아래에는 쇠종이 있으며 680근으로 주조하였다. 다음으로 140근의 중종과 법고 하나도 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를 정리하면, 만세루는 정면 7칸의 중층 누각이며 상층에는 북을 놓았는데, (과장된 표현이긴 해도) 실내는 마치 억만 섬의 곡식이라도 들여 놓을 수 있을 만큼 넓으며 아래층에는 680근짜리 쇠종과 140근의 종과 북을 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운사에 소장한 문서 가운데 「전각요사창건연대 방열목록(殿閣寮舍創建年

3) 사찰에 전하는 「전각요사 창건 연대 방명열목」에 따름.

代芳名列目)」을 보면, 대양루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문(正門)’이라고 명기하고 1620년에 요의가 창건하고 1680년에 중창했으며 1690년에는 건물 좌우에 제석탕을 조성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기록은 법당 앞 누각을 정문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조선중기 사찰 전각 배치의 한 가지 특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누각 좌우에 호법신인 제석탕을 걸어 둔 점도 누각이 다양한 예불 장소로 쓰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각 상층에 법고를 걸고 아래층에 종과 북을 두어 대양루가 정문 겸 다양한 예불공간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⁴⁾

안타깝게도 1620년에 건립되었던 대양루는 1751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바로 복구에 착수하여 이듬해(임신년, 영조 28)에 재건되었는데, 「만세루중수기」(1760년)에 그 과정과 참여자의 명단이 상세하다. 현존하는 만세루는 이때 재건된 건물인데, 누각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 형태나 구조, 규모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었다. 대양루 시기에 7칸이던 건물은 정면 9칸, 측면 2칸의 장대한 규모로 확장되었다. 다만, 이전에 중층 누각구조이던 건물은 단층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구조는 단층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각 명칭은 그대로 누각임을 표방하였다. 「만세루중수기」(1760년)에는 당호의 유래를 밝혀두었는데, “무릇 사찰을 세움에 있어 법전이 주가 되거늘, 대웅씨(大雄氏)가 범종루(梵鍾樓)를 ‘만세’라고 편액한 까닭은 무엇인가? 크고 작은 공양물을 올리고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며 성상(聖上)의 만만세를 축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현재 만세루 안에는 시를 새긴 시액(詩額) 여러 점이 게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이다.

만세루는 1752년에 재건한 이후에는 건물 자체에 큰 변화 없이 20세기를 맞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근대의 모습은 1933년에 발간된 『조선고적도보』(13권)에 실려 있는데, 사면에 개구부가 없는 상태의 퇴락한 만세루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다. 근년에 와서는 1968년에 지붕을 보수하고, 1978년에 기둥 2본을 보수하고, 현재와 같이 벽체에 판벽을 설치하였으며, 1985년에는 균열이 발생한 대들보 1본을 교체하고 기둥과 보의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부재들은 수치로 처리하여 보강하였다. 1992년에는 변와 보수와 단청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도 마루와 창호, 좌우의 판벽을 보수하는 등의 공사가 이어졌다. 근대 이후의 보수 이력을 보면 1978년 기둥 2본 보수, 1985년 대들보 교체 이와 주요 가구재와 골격은 1752년 중수 이후의 모습을 대부분

4) 중심사역 마당 앞의 정문(正門)에 관한 논의는 선운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선운사 기록에 대양루-만세루와 정문을 연결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선운사 측의 기록을 준수하여 이번 보고서에서도 인용, 제시하였지만, 향후 정문과 누각 간의 문제는 따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밝혀둔다.

기존 연구성과로 홍병화·김성우, 「조선시대 사찰건축에서 정문과 문루의 배치관계 변화」, 『건축역사연구』제18권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9년 2월; 이경미, 「기문으로 본 세조연간 왕실원찰의 전각평면과 가람배치」, 『건축역사연구』18권5호, 2009년 10월 등이 있으나 개별 사찰마다 차이를 감안하면 치밀한 논구가 필요하다.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만세루의 건물 현황

1) 입지와 배치

선운사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안리 선운산(해발 335m)의 동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선운산은 도솔산으로도 불리며 조선후기에는 산간 곳곳에 89개의 암자와 189개의 요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선운사는 도솔봉을 뒤로 하여 앞쪽으로 선운천이 흐르는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동남향으로 길게 전각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다. 현재는 일주문을 지나 선운천을 따라 약 400여 미터를 올라가면 우측으로 사역이 전개되는데, 천왕문과 만세루, 대웅전이 중심축선상에 놓이고 좌우에 여러 전각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다. 주불전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 하단에 영산전과 명부전이, 상단에는 팔상전과 산신각이 있다. 동쪽에는 관음전이 있다. 관음전 동쪽에는 동상실, 능인각, 정보박물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해 있다.

1945년 이후 선운사는 새로 여러 전각들이 들어서면서 배치에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가까운 1989년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1987년 이전에 제작된 선운사 배치도에 의하면⁵⁾ 천왕문, 만세루, 대웅전이 일직선 위에 놓이고 그 동쪽에는 요사 하나가 서 있고 서쪽으로 대웅전에 근접해서 요사와 영산전, 만세루 서쪽에 ㄱ자형의 큰 요사가 있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이후에 대웅전과 만세루 서쪽의 요사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웅전 동쪽 요사도 관음전으로 당호가 바뀌었으며 새롭게 중심축에서 좌우로 빈 공간을 두고 멀리 떨어져서 서쪽에는 향운전, 영산전 등이 들어서고 동쪽으로는 동상실, 능인각이 들어서면서 가람배치는 대폭 달라졌다. 또한 능인각 동편에는 정보박물관 일곽이 들어섰다.

이처럼 가람배치 면에서 선운사에서 비교적 오래된, 제 위치라고 판단되는 건물은 천왕문과 그 북쪽 일직선 축에 자리한 만세루, 대웅전뿐인데, 천왕문은 1971년에 신축된 건물이므로 선운사에서 비교적 조선후기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배치 부분은 만세루와 대웅전 두 건물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세루와 대웅전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건되기 이전 대양루는 중층 누각구조였으며, 이 누각이 대문의 용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기록

5)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1987.

을 신뢰한다면, 대웅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양루의 누 아래를 통과하는 방식 [누하진입] 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해 비해 다시 지은 만세루는 단층 건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천왕문을 들어서면 만세루의 측면으로 돌아서 [우회진입] 대웅전 마당에 진입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선운사의 중심사역 안에서 비록 개별 건물의 배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만세루가 누각의 형태를 취하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2) 건물 현황

현재의 만세루는 정면 9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지붕 건물이다. 공포는 2익공으로 짜고 처마는 전후 모두 겹처마이다. 명칭은 누각이지만 건물은 낮은 기단 위에 초석을 두고 사방에 평주를 세우고 바닥 전체는 마루를 깔 일반적인 단층 건물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웅전 마당으로 면한 만세루 배면은 전체를 개방하여 마치 누각과 같은 구조를 취하였다. 건물은 정면이 23.7m, 측면이 7.34m로 전체 면적은 185.9㎡가 된다.

출입은 대웅전 마당에 면한 북쪽의 벽체 없이 개방된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건물의 편액은 반대쪽 남쪽 중앙 처마 밑에 게시되어 있다. 편액의 게시 위치를 고려하면 이 건물의 정면은 남쪽이 되고 북쪽은 배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과거 중층 누각일 때 역시 정면은 남쪽면이고 누각의 출입은 마당에 면한 배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짐작되며, 이런 진입방식이 단층 일반 건물이 되면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기단은 자연석을 한 단만 두어 주변 지면과 반자 정도의 높이 차이를 지닐 뿐이다. 초석은 자연석을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거칠게 다듬은 정도이다. 기둥은 전체가 두리기둥이며 중앙열을 따라 가운데 3칸은 기둥을 두지 않고 나머지 좌우 각 3개의 기둥을 고주 형식으로 세웠다. 앞 뒤 평주에서 중앙열 고주에 맞보를 걸었으며 고주가 없는 중앙 3칸은 앞뒤 평주 사이를 대들보로 연결하였다. 따라서 이 건물의 보는 중앙 2개는 대들보 위에 종보를 세우는 방식이고 나머지 좌우 각 3칸은 고주에 맞보를 걸고 고주 상부에 종량이 걸치는 특이한 방식을 보여준다. 중앙 2개의 들보는 비교적 반듯하고 굵은 재목으로 되어 있지만 좌우 맞보를 이루는 보들은 하나 같이 크게 곡선을 그리는 휘어진 부재들이다. 이런 휘어진 보들이 건물 상부에 연속되는 점이 이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의 하나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어칸 종량의 형태이다. 종량은 한쪽 끝이 둘로 가라

진 재목을 사용했다. 따라서 한쪽은 정상적으로 동자주 위에서 종량이 시작하지만 반대쪽은 갈라진 두 개의 나무가 동자주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동자주 창방 위에 걸린다. 한쪽이 갈라진 종량은 의도적으로 가공한 것은 아니고 자연 상태로 성장한 나무들에서 구한 것들로 보인다. 고주 상부 종보의 경우에는 고주 상부에 십자 형태로 받침목을 결구하고 용을 조각해 놓았는데, 용은 채색으로 황룡과 청룡으로 나누었다. 서까래 역시 반듯한 재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이 적당하게 휘어진 것들은 적절하게 배분하여 배열해 놓았다. 현재는 양토 부분을 흰색으로 회로 마감해 놓아 흰 배경을 두고 녹색의 구부러지고 휘어진 서까래들이 마치 천장에서 춤을 추는 듯 율동이 느껴지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러면서도 기둥재는 흰 부재를 펴서 사용한 기법이 남아 있어서⁶⁾ 수직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 기둥재에 대한 조치를 볼 수 있다.

이익공을 짠 공포는 초익공 쇠서는 장식의 크지 않은 양서 형태를 이루고 이익공 쇠서 역시 간결하게 양서와 수서를 조각했다. 특이한 부분은 배면 첨차인데, 첨차 양 끝단을 연꽃으로 조각하고 연꽃과 줄기사이를 구멍을 뚫어놓았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인근의 부안 개암사 대웅보전이나 익산 송림사 보광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서 눈길을 끈다. 첨차에 화려한 조각을 가미한데 비하면 주칸 마다 하나씩 배열한 화반은 단순한 원형 또는 방형으로 처리되어 대조된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양 측면은 풍판을 달았다.

3. 문화재적 가치

1) 조선시대 사찰 누각과 만세루

불교사원에 누각이 지어지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비롯되어 조선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찰 내에 누각이 갖추어져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사찰의 누각은 그 형태나 구조, 지어진 위치나 쓰임새에서 다른 어떤 건물보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누각들은 불전 앞에 마당을 사이에 두고 불전과 마주하여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경내 가장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아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높게 솟아 멀리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경관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누각의 쓰임새도 단순히 주변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전 마당에 면해서 마당에서 거행하는 불교의식의 보조적인 공간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또

6) 고창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자료보고서 고창 선운사 만세루』, 2019, 45쪽. 본 보고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서술하였지만 특별히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각주를 달았음을 명시해둔다.

누각 위에는 큰북을 올려놓아 일상의 시각을 알려주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동작을 지휘하기도 한다. 산간의 불전 마당 앞에 놓인 누각은 하층은 통용문으로 쓰이도록 고안을 해서 누하진입의 독특한 진입경관을 만들어내는 일도 흔하게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 사회 지배층의 외면 속에서 불교계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찰 내에 누각을 세우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사찰 재정 속에서도 누각은 갖가지 지혜를 짜내서 사찰 내 가장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선운사의 만세루는 이런 17세기 이후 불교사원의 누각이 갖는 시대성을 다른 어떤 건물보다 더 잘 간직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선운사의 불전 앞 누각은 본래 대양루라는 이름으로 1620년에 지어졌다. 대양루는 정면 7칸의 중층 누각으로, 상층에는 큰북을 올려놓고 넓은 개방된 공간을 갖추었고 하층에는 작은 북과 종을 설치했었다고 전한다. 1751년 선운사에 큰 불이 나면서 대양루가 소실되고 이듬해에 누각을 재건했을 때 건물은 정면 9칸으로 더 늘어났다. 대신 구조는 중층 누각이 아니고 단층 건물로 바뀌었다. 당호는 지금 보는 것 같은 만세루가 되었다. 만세루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누각이 아니다. 그러나 선운사 내에서 이 건물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면 만세루는 분명히 조선시대 사찰의 누각이 지닌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해도 충분하다.

조선시대 사찰에서 불전 마당 앞에 놓인 누각은 마당에서 거행하는 각종 야외 예불의 연장 공간으로 쓰였다. 이를 위해 누각의 바닥 높이는 불전 마당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해서 마당에서 치르는 행사의 보조 공간으로 쓰였다. 간혹 누각에서는 법회를 열고 신도들은 마당에 모여 앉아 법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은 특히 사찰 대지가 경사진 경우에 효과적인 구성을 하게 되는데, 누각의 하층은 진입 통로로 쓰이고 누각 상층은 불전 마당과 비슷한 높이가 되어 마당의 연장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선운사는 평탄한 지형에 조성된 사찰이었기 때문에 1620년에 지어졌던 대양루는 단지 높은 누각의 용도로만 쓰였던 듯하다. 상층에 큰북을 올려놓아 마당에서 큰 변화가 열리면 여기서 북을 우렁차게 울리고 또 특정한 사람들이 누각 위에서 마당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양루가 불에 타고 다시 지어질 때, 누각은 산간의 사찰처럼 불전 마당과 높이를 맞추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시 지어진 만세루 누각은 대웅전 마당과 비슷한 높이에서 마당에서 치르는 야외 법회의 연장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만세루는 비록 건물 형태로는 누각이 아니었지만 그 용도는 전형

적인 사찰 누각의 그것을 계승한 모습이었다.

2) 만세루의 건축 특징

만세루는 정면이 9칸이다. 사찰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물론 조선시대 건물 중에는 향교 명륜당으로 강릉향교나 안성향교에 정면 11칸이나 되는 누각형 건물이 남아있지만, 사찰 누각에서는 9칸 정도가 최대 규모였다. 현존 사찰 누각 가운데는 대체로 정면 3칸이 주류지만 5칸, 7칸 규모도 보이고, 9칸은 흔치 않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사실 규모만이 아니고 건물의 짜임새에서도 만세루는 다른 건물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점들이 있다.

우선 이 건물은 가운데 3칸은 앞뒤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종보를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좌우 각 3칸은 가운데 고주를 세워 앞뒤 평주에서 고주에 맞보를 거는 방식을 취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를 짠 사례는 흔치 않다.

재미있는 처리는 어칸 고주의 종보인데, 한쪽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자연재를 이용했다(有角木, 아귀목). 그 때문에 한쪽은 동자주 위에 종보가 걸리지만 반대쪽은 동자주 좌우 창방 위에 종보 끝이 걸린다. 이것은 일부러 가공한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들러 대칭으로 갈라진 나무를 구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고주에 걸린 맞보들도 반듯한 부재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자연적인 곡선을 이룬다. 이런 곡재들은 위치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열하여 마치 건물 상부에서 보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현재 만세루를 중수하고 기록한 「만세루중수기」(1760년)에는 당시 공사를 맡은 목수와 야장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목수질에는 최윤(最允), 양철(良哲), 제영(第英), 각심(覺心), 세운(世雲)이 적혀 있다. 이름으로 미뤄 이들은 모두 승장(僧匠)으로 판단되며, 이로써 만세루는 승장이 주도하여 건립한 건물로 생각된다. 야장은 묘심(妙深), 인정(仁淨), 축찰(祝察), 철원(哲元), 김춘화(金春和), 견성(見性), 황만수(黃萬水), 이우봉(李宇逢)이 참여하고 있어 쇠를 다루는 분야는 목수와 달리 승장과 민간장인이 협력하였음을 보여준다.

만세루가 지어지던 18세기는 특히 불교사원에서 휘어진 부재나 다른 건물에서 뜯어 온 부재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방식들이 성행했다. 이것은 좋은 재목을 구하기 어려운 조선후기 불교사원의 여건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이 시기 불교사원은 전적으로 승려들 스스로의 장인 활동으로 지어졌다. 승려 장인들은 유연한 열린 마음

과 독창적인 창의력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냈으며 그런 과정의 하나가 쓸모없는 자재에서 쓰임새를 발견하고 남들이 버린 자재를 구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독창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건축으로 귀결되었다.

선운사 만세루 역시 그런 18세기 승려 장인들의 창의력이 다른 어떤 건물보다 잘 드러나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종합의견

현재 선운사 만세루는 1620년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중에서 간직하고 있는 「대양루열기」, 「만세루중수기」(1752)를 비롯한 사료를 통해 뒷받침이 된다. 대양루에서 만세루로 바뀐 변화는 단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소실 전에는 중층 누각구조로 추정되나 재건하면서 단층으로 구조를 바꾸었는데, 이렇게 구조를 바꾼 배경에는 누각을 불전 마당의 예불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만세루는 변화하는 불교사원의 시대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한 뛰어난 누각 건물의 예라고 평가된다.

또한 건물 형태나 구조에서도 흔치않은 9칸이라는 큰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가운데 3칸과 좌우 3칸의 보 구성 방식을 달리하여 한 건물 내에서도 다양한 구조적 변용을 보여주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를 걸치는 방식에서도 어칸의 종보는 의도적으로 들로 갈라진 자연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임기응변의 뛰어난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세루를 맡아 지은 승장들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보여주는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다.

만세루 건물은 조선후기 불교사원 누각건물이 기능에 맞추어 그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인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자재 획득의 곤란을 극복하고 독창성 가득한 창의적 건축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이 건물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 06. 25	대상문화재	고창 선운사 만세루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전통건축)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 물			
	문화재 명칭	고창 선운사 만세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01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가. 역사적 가치

선운사는 신라 진흥왕(재위 540년~576년) 때 창건했다는 설과 백제 위덕왕 때 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2가지 창건설화가 전해진다. 한편, 「선운사 사물연기기(禪雲寺寺物緣起記)」에는 당나라 정관연간(貞觀年間, 627~647)에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선운사 만세루는 1620년 승려 了義가 창건⁷⁾한 후 1680년 중수하였고 1751년 화재로 500여칸이 소실되어 이듬해인 1752년⁸⁾에 만세루를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다시 지어졌다. 이후 만세루에 대한 특기할만한 중수나 중창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건물을 1752년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세루 중수기(1760)에 의하면 “대웅씨(大雄氏)가 범종루(梵鐘樓)를 ‘만세(萬歲)’라고 편액한 까닭은 무엇인가? 크고 작은 공양물을 올리고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며 성상(聖上)의 만만세를 축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만세루는 범종루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686년에 작성한 『禪雲寺法堂諸庵各房常用器皿掌緣記』 「大陽樓列記」에는 대양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7칸의 화려한 누각이다. 위에는 범고가 있다. 가히 억만 섬의 곡식을 보관할 수 있다. 아래에는 쇠종이 있으며 680근으로 주조하였다. 다음으로 140근의 중중(中鐘)과 법고(法鼓) 하나도 있다.”

즉, 대양루는 범종루의 다른 이름이며, 본래 정면 7칸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중에서 억만 섬의 곡식을 가히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범고가 있고 아래에 쇠종[金鐘]과 중중(中鍾)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대양루는 중층누각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大陽樓列記」와 「萬歲樓重修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만세루는 1751년 화재 이전에는 7칸의 중층 누각의 범종루 기능을 가진 건물로 ‘대양루’라는 명칭을 가졌으나, 화재 후 새로 건립할 후에는 현재의 9칸의 범종루의 기능을 가진 ‘만세루’로 개칭된 단층 건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운사 소장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 선운사에서는 만세루를 정문(正門)이라 하고 있다.

7) 「만세루 중수기」에 의하나, 1840년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전각요사 창건연대 방명열목(殿閣寮舍 創建年代 芳名列目)」에는 “泰昌元年(1620년) 庚申春創建 化主了義 修粧化主能仁 丹青化主太行”이라 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까지 언급되어 있다.

8) 「만세루 중수기」

사찰건축에 있어 누각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사찰 중심영역의 구성요소로 도입되었다. 사찰에서 루의 건립은 대체로 17~18세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세루(萬歲樓)라는 명칭은 불법의 妙用이 만세토록 이루어지라는 의미를 가진다.

선운사 만세루는 조선시대 사찰 누각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단층 누각으로서 조선 중후기 이후 사찰 누각이 대형화되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 건축적 특징

선운사 만세루는 누각의 구조가 아닌 단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만세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 후기 선운사에서는 만세루를 정문(正門)이라 하고 있다.

선운사 만세루는 평지에 세워진 단층 건물로 ‘樓’의 명칭을 지니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樓’는 아니다. 사찰에서의 단층 누각은 평지 사찰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입지, 주불전과의 관계, 의식을 치르거나 강론 또는 설법을 할 때 사용상의 편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전 앞에 위치하면서도 평지에 건립되었다. 일반적인 산지가람에서 주 불전앞에 두는 누각의 용도는 상부 층은 설법을 하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고 하부는 출입 용도로 쓰인다. 경사지인 경우는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사찰 입구쪽에서는 중층이고 대웅전 쪽에서 보면 단층으로 보이게끔 하는데 선운사 만세루는 입지상 평지이고 기능상 설법 등 행사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대웅전보다 높은 중층누각은 불리했을 것이므로 단층 누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만세루는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이다. 사찰의 누각으로서는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건물 내부 가운데열에도 기둥을 두었는데 가운데 세 칸에는 기둥을 생략하여 공간을 확보하였다.

기둥은 대부분 원목의 꺾질만을 벗겨내고 대충 치목한 것을 사용하였다. 특이한 것은 많은 기둥들을 이음하였는데 그 중 몇 개는 기둥이음의 상하 굽기가 확연히 다른 것을 사용하여 기괴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기둥 굽기 또한 모두 다양하게 사용하여 정연한 맛은 없다.

만세루의 공포는 채주두가 없는 이익공(二翼工) 형식인데 정면과 배면의 모습을 다르게 구성한 특징을 보인다. 정면과 배면의 공포는 살미의 형태는 동일하나 첨차의 모습을 달리하여 정면을 강조하였는데, 정면의 첨차는 넝쿨문양과 연꽃을 조각한 모습이나 배면의 것은 교두형 첨차를 놓아 격을 달리 하였다. (만세루의 경우 대웅전을 바라보는 면을 정면으로 보아야 한다.) 초익공은 양서형으로 상부에 연봉을 조각하였으며, 이익공은 수서형으로 하부에 연봉을 조각하였다. 내부에서는 초익공과 이익공을 연속되게 초각하여 보를 받치는 보아지가 되도록 했다.

만세루의 가구는 5량구조로서 어칸과 그 외의 다른 칸의 구성 형식이 서로 다르다. 어칸은 전후면 평주를 건너질러 굽은 대들보를 얹어 통칸으로 처리한 반면에, 나머지 칸은 심고주를 세워 맞보를 걸었다. 내진주를 두는 것은 공간활용면에서 매우 불리한데도 굳이 심고주를 둔 것은 건물이 크고 길기 때문에 자신감의 결여에서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럼에도 어칸에 기둥을 세우지 않은 것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세루는 모든 부재들이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목재를 깎질만 벗겨 사용하였다. 일부 건축물에서는 기둥, 보, 서까래 등 일부 부재를 자연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만세루처럼 자연재를 많이 사용한 사례는 보기 어렵다. 특히, 어칸 좌우의 종보는 가지가 두 개로 벌어지는 형태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이 종보 하부에는 용두(龍頭)를 조각한 보아지를 끼워놓았다. 나름 장엄을 베풀고자 의도하였다. 종보 위에는 사다리꼴 형태의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쳤는데 건물의 양 측면부분에서는 판대공 대신 동자대공을 세웠는데 불안하였던지 人字대공으로 보강하였다.

2. 종합의견

선운사는 조선 초기 중창 때 작성한 문서를 비롯하여 최근까지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만세루와 관련된 조선 후기 기록으로는 「禪雲寺法堂諸庵各房常用器皿掌緣記, 1686년」, 「만세루중수기, 1760년」, 「殿閣寮舍 創建年代芳名列目, 조선 후기」 등이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해 만세루는 1620년에 창건되었고, 1680년에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51년 화재로 소실된 후 1752년에 7칸에서 9칸으로 중건하면서 명칭도 대양루에서 만세루로 고쳤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리한 기록과 최근까지 수리한 기록이 잘 남아 있다. 이처럼 선운사 만세루는 창건과 중건 및 수리에 관한 역사가 사료에 의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선운사 만세루의 건축적 특징으로는 기둥, 대들보, 종보 등 주요 구조재뿐만 아니라 마루 귀틀과 청판 등에도 정형화 되지 않은 자연미를 표현하고 있다. 선운사 만세루는 서로 굽기가 다른 기둥을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매우 굽은 기둥을 사용하였다. 또한 휨이 큰 자연재를 사용함으로써 유난히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다. 특히, 기둥을 이어 쓰되 상하 부재의 굽기를 일치시키지 않는 방법, 두 갈래로 갈라진 목재를 종보로 사용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 이러한 정연하지 않고 비정상적이며 과격적인 모습은 다소 기괴하기까지 보이기는 하나 다른 건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선운사 만세루는 내부에 공간활용면에서 불리한 심고주를 세웠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는 건축기술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고 내부 기둥을 둔 것은 건축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듯 선운사 만세루는 건축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재 사용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파격적인 모습은 우리 전통 건축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찰의 루 건축 중 가장 규모가 큰 것도 그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 06. 25	대상문화재	고창 선운사 만세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고창 선운사 만세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보존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02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2. 신청종별 : 보물

3. 문화재명칭 : 고창 선운사 만세루(高敞 禪雲寺 萬歲樓)

4.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5. 고창 선운사 만세루 연혁

고창 선운사 만세루(이하 만세루)는 대웅보전이 중건되고 6년이 지난 1620년(광해군 12) 봄에 요의(了義)가 창건하였고, 1680년(숙종 6) 봄에 혜정(慧淨)이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위의 사실이 기록된 「만세루중수기(萬歲樓重修記)」에 의하면 1751년(영조 27) 가을에 화재가 발생하여 천불전(千佛殿), 사왕전(四王殿), 루(樓) 등 오백 여 칸이 소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선운사 고적(禪雲寺古蹟)」에도 1751년 선운사의 화재에 대한 기록을 통해 만세루가 원래 대양루(大陽樓)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86년(숙종 12)의 「대양루열기(大陽樓列記)」에는 화려한 누각으로 법고(法鼓)가 있고, 억만 섬의 곡식을 보관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전각요사 창건연대 「방명열목(殿閣寮舍 創建年代 芳名列目)」에 보이는 정문(正門)에 관한 기록은 「만세루중수기」에 보이는 정문(正門) 관련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조선 후기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전의 정문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세루중수기」에 ‘크고 작은 공양물을 올리고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는 성상(聖上)의 만만세를 축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690년(숙종 16)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제석(帝釋) 탕화를 만세루의 좌우측에 조성하였다는 점은 외부 악귀를 막는 벽사의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중건 이전의 만세루는 벽사(辟邪)의 기능과 범음구(梵音具)의 보관처로 활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불교행사를 수행하는 강당의 기능과 함께 대웅전의 정문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고창 선운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의 선운산(해발 335m)의 동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 후기 선운사의 사세가 절정에 달할 무렵에는 89개의 암자와 189개의 요사(寮舍)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선운사의 북쪽에 경수산(鏡水山), 서쪽에 선운산(禪雲山)이 있고, 앞으로는 선운천이

흐른다. 선운사는 산과 계곡이 마주하는 비교적 넓고 평탄한 대지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다. 도솔산선운사창수승적기(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에 의하면 원래 법당들은 임좌병향(壬坐丙向)⁹⁾이었다고 하나 정유재란 이후 중창 과정을 거치면서 건좌손향(乾坐巽向)¹⁰⁾으로 약간 변경되었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영산전 자리에 1713년 건축된 중층(重層)의 장육전(丈六殿)이 있어 대웅전과 장육전이 좌우로 배치되어 이원화된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선운사는 천왕문(天王門), 만세루(萬歲樓), 대웅전(大雄殿)이 중심축선상에 위치하고, 좌우에 여러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 축선의 대웅전과 만세루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영산전, 명부전, 팔상전, 산신각 등이 위치하고 동쪽에는 범종각, 요사, 성보박물관 등이 있다.

해방 후 선운사는 가람배치가 바뀌기 시작하였는데, 1947년에는 만세루 서쪽에 향운전이 건립되었고, 1971년 이후 천왕문과 범종각 등이 건립되었다. 1989년에는 향운전을 현재의 자리로 이축하여 좌향이 변경되었고 1990년에는 대웅전과 영산전 사이의 요사를 철거함으로써 개방된 가람의 배치형태로 변화되었다. 특히 서쪽 경역에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면서 선운사의 가람배치는 동서방향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7. 건축현황 및 특징

만세루는 평지에 세워진 단층의 누각으로 누하층의 기둥이 짧아 우회 진입방식을 취한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와 비슷한 형식을 갖는 단층 누각의 사례로 표충사 우화루, 불갑사 만세루 운문사 만세루, 통도사 만세루 등이 있다.

만세루는 정면 9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사찰의 문루로는 큰 규모에 속한다. 중앙의 3칸은 내진 기둥이 생략되어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협칸 및 퇴칸보다 어칸의 폭이 넓어 중심성이 강조된다. 전체길이는 정면 23,732mm, 측면 7,834mm으로 정면과 측면의 길이는 3:1의 비율을 보인다. 면적은 약 185.92㎡이다. 어칸은 13척, 어칸 좌우의 협칸은 9척, 나머지 협칸은 8척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단은 자연석의 1단으로 낮게 조성되어 있다. 기단석 중 일부는 다듬은 석재가 확인되는데, 다른 건물의 것이 재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기단 주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당이 현재보다 높았으나 1990년 마당의 레벨을 낮추는 공사가 시행되면서 정비되었다. 초석은 높이가 낮고 비교적 넓은 형태의 판형석재가 사용되었다.

기둥은 정면과 배면에 각각 10본씩 20본의 평주가 세워져 있고, 도리방향의 중심 열에 8본의 고주가 사용되었다. 기둥은 수피(樹皮)만 벗겨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치목된

9) 정남향에서 약간 동으로 틀어진 방향

10) 동남쪽을 바라보는 방향

것이 사용되었다. 총 13본의 기둥에서 상하부의 부재가 연결된 이음의 수법이 관찰되는데 최대 기둥 1본이 상하로 4개의 부재가 동바리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상호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둥의 비교적 굵은 부재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 모서리의 기둥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나무결의 풍화도 또는 치목 수법 등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컨대, 연대가 이른 부재들의 상당수가 현재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방은 단면상 상하부의 모서리가 둥글게 깎인 세로로 긴 장방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나 원래 목재의 특성에 의해 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한다. 정면 창방의 높이는 약 250mm, 배면의 경우 290mm의 수치를 보이는데, 배면의 경우 지지하는 벽체가 없이 기둥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도된 것으로 이해된다.

만세루의 공포는 재주두가 없는 이익공(二翼工) 형식으로 정면과 배면의 모습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정면의 공포는 주두 위에 교두형 첨차가 놓이고 첨차의 양 끝에 소로가 놓인다. 초익공은 상부에 연봉이 초각된 양서형이고, 이익공은 수서형이다. 배면의 공포에는 첨차에 덩굴 문양과 연꽃이 초각되어 주불전 앞마당의 위계가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첨차의 조각수법은 부안 개암사 대응보전 및 익산 송림사 보광전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투각(透刻)된 형식으로 모습이 매우 화려하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원형화반과 방형화방이 사용되었다.

만세루의 가구는 5량구조로 어칸과 협칸의 가구 방식이 상이하다. 어칸은 정면과 배면에 대량이 설치되어 기둥이 없는 통칸으로 처리된 반면에 협칸은 측면의 이등분점에 심고주가 세워져 맞보형식으로 지지된다. 만세루는 상부가구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부재가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데, 특히 상부 가구에서 만세루 가구법의 독특함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어칸 좌우의 종량은 가지가 두 개로 벌어지는 Y자 형태의 부재가 설치되어 보머리, 하부 보아지 및 보아지 단부의 용두(龍頭) 장식 등도 갈라진 가지 수 만큼 설치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종보의 상부에는 대체로 판대공이 설치되어 종도리를 받으나, 건물의 양 단에는 동자대공이 역할을 대신한다. 일부 심고주의 상부에는 황룡(黃龍) 및 청룡(靑龍) 장식이 설치되어 있다.

만세루의 지붕은 연목 위에 부연이 설치된 겹처마로 양측면은 박공과 풍판으로 마감되어 있다. 기와는 정면을 중심으로 옛기와가 남아있고, 망와 등의 특수기와는 옛것이 잘 보존되어 있다. 만세루의 바닥 내부는 우물마루가 설치되었는데, 2010년 해체보수 시 귀틀 및 청판 보강이 있었으나 원래의 자연미를 느낄 수 있다. 단청은 석간주(石間硃)와 뇌록(靛綠) 두 가지 안료가 사용된 가칠단청으로 마감되었다.

8.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중창 시의 문서를 비롯하여 관련 기록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해 1620년에 창건되었고, 1680년에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51년에는 화재로 소실된 후 1725년에 7칸에서 9칸으로 중건되면서 대양루에서 만세루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차례 수리한 기록도 상세하게 남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대량 1본 및 풍판이 교체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사진자료 등을 통해 본래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만세루의 건축수법 중 치목의 방식, 자연 부재의 사용에 따른 규격화되지 않은 결구법, 상하 부재의 연결 방식 등은 안성 청룡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대웅전, 구례 화엄사 구층암 요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미적 가치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만세루는 중층 누각의 구조가 아닌 단층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만세루라는 편액을 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문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배경에는 조선 후기 사찰의 배치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10. 중요 건축문화재 단청의 과학적 조사 및 분석 검토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R&D)으로 '17년부터 자체 추진 중인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 연구」 사업 관련, 전통 단청의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한 문화재 현장조사 및 분석용 시편 확보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분석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국가지정 건축문화재 7건(충청·광역시 지역 소재)에 대한 단청 현장조사 및 안료분석을 위한 시편 확보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국립문화재연구소(복원기술연구실)

(2) 신청내용

○ 조사개요

- 대상문화재 : 보물 「공주 마곡사 영산전」 등 총 7건(붙임 1 참조)
- 조사기간 : 2020. 6월 ~ 8월(3개월)
- 추진방법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체 추진(복원기술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 추진내용 : 단청안료 현장조사·분석 및 박락 시편에 대한 정밀분석
- ※ 기 추진 실적('17~'19) : 전라도지역 14건 조사(1차) / 경상도지역 14건 조사(2차) / 서울·경기지역 8건 조사(3차)

○ 조사내용

- 대상문화재 단청안료 현장조사 및 비파괴분석(현미경 관찰, 색도, 성분분석 등)
- 주요 색상별 단청안료 시편 확보 및 정밀분석(안료 성분, 입자형태 및 크기 등)
※ 시편확보는 사전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선정된 지점에서 자연
박리·박락 부분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확보함(5mm 이내 범위).

○ 향후 계획('21년)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단청안료 분석자료 발간 완료 및 제공('18~'21년/
전라도편, 경상도편, 서울·경기도편, 충청·광역시편)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전통 단청 종합 분석 DB 구축('21년)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결과보고회, 향후 추진 방안 등 검토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붙임】 중요 건축문화재 단청 조사 대상목록(4차년도) 1부. 끝.

【붙임】 중요 건축문화재 단청 조사 대상목록(4차년도)

연번	종목	지정번호	문화재명	분야	소재지	비고
1	보물	제800호	공주 마곡사 영산전	사찰건축	충청남도	
2	보물	제801호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사찰건축	충청남도	
3	보물	제802호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사찰건축	충청남도	
4	보물	제1771호	기장 장안사 대웅전	사찰건축	부산광역시	
5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사찰건축	대구광역시	
6	보물	제178호	강화 전등사 대웅전	사찰건축	인천광역시	
7	보물	제179호	강화 전등사 약사전	사찰건축	인천광역시	
국가지정 건축문화재 총 7건(보물 7건)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03-011

1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국보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우사(퇴비사) 증축 등 허가신청 16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6건	원안가결 11건 조건부가결 4건 부결 1건	
국보 제201호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 (○○○)	<input type="checkbox"/> 우사(퇴비사) 증축 ○ 위치 :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844-2번지 외 1필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25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300㎡ - 건축(연)면적 : 120.0㎡ - 구조 : 강파이프구조 - 층수/높이 : 지상1층 / 7m	원안가결	'20.02.24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경북 안동 (○○○)	<input type="checkbox"/> 진입로 정비 공사(2차) ○ 위치 :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일원 * 보호구역 내, 제1구역 ○ 사업내용 - L=248.5m, B=3.0m · 도로정비 B=3.0m, L=137.5m · 흙콘크리트포장 B=3.0m, L=111.0m	원안가결	'20.02.2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189호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칠곡 (○○○)</p>	<p><input type="checkbox"/> 명부전 보수(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93.24㎡(28.21평) - 양식 : 5량가, 주심포양식(2출목), 홀처마, 맞배지붕 - 주칸 : 정면5칸, 측면3칸 - 해체범위 : 창방상부 옥개부 전체해체보수 - 좌측 및 배면기단보수 - 파손되고 부식된 목부재 교체 보수 - 지붕 변화 보수 : 지붕면적 233.10㎡ - 회벽 및 고막이 부분 해체 보수 - 명부전 내부 전체 및 외부 일부 단청공사 - 명부전 좌측 및 배면배수로 및 주변배수 시설정비 - 불교조각상 이운 후 재설치 : 27구(이운 계획변경) 	원안가결	‘20.02.24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예천 (○○○)</p>	<p><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번지 일원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13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71m, B=6.0m - 토공 : 흙깎기 184㎡, 터파기 329㎡, 되메우기 178㎡, 사토 278㎡ - 배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측구 : L=159m · 우수관(D40~450mm) : L=111m · 오수관(D200m) : L=92m - 구조물공 : L형옹벽(H=1.5m) L=30m - 상수공 : L=72m - 포장공 : 아스콘포장A=5.2a(520㎡), 아스콘덧씌우기포장(T=5cm) A=2.3a(230㎡) 	원안가결	‘20.02.2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984호 영동 신태리 석조여래삼존 입상	충북 영동 (○○○)	<input type="checkbox"/> 창고(산업자재물류) 신축 ○ 위치 :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107-10번지 외 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59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1,605㎡ - 건축(연)면적 : 2,317.5㎡(6,852.5㎡)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동수/최고높이 : 1동/ 20.2m	원안가결	'20.02.24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충남 예산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증축 ○ 위치 :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0-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65m 이격) ○ 사업내용 : 화장실 증축 - 건축(연)면적 : 23.76㎡ - 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높이 : 지상1층 / 4.9m	원안가결	'20.03.10
보물 제675호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경북 영천 (○○○)	<input type="checkbox"/> 작업로 개설 및 수목제거 ○ 위치 :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산6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사업내용 : 작업로 개설 수목제거 - 작업로 : L=100m, A=200㎡ - 수목제거 : 신갈나무 6~8그루	원안가결	'20.03.10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경기 안성 (○○○)	<input type="checkbox"/> 방아동천 재해예방사업 ○ 위치 :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94-13번지 일원 * 제1,2,3구역(보호구역 주변) ○ 사업내용 : 하천 내부 토사 정리 - 토공 : 터파기 1,332㎡, 흙쌓기 1,332㎡ ※ 전석쌓기(50*60*70cm) 152㎡는 허용기준 외 지역에 설치.	원안가결	'20.03.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531호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경기 양평 (○○○)	<input type="checkbox"/> 진입로 벤치 설치 ○ 위치 :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6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m 이격) ○ 사업내용 - 벤치(1800*350*370mm) 설치 : 50개소 (허용구역 내 47개소)	원안가결	'20.03.10
보물 제528호 제천 청풍 한벽루	충북 제천 (○○○)	<input type="checkbox"/> 관람편의시설(평상마루) 설치 ○ 위치 :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평상마루(9m*6m) 설치 : 1개소 - 최고높이 : 0.7m - 마감 : 방부목 설치 ※ 기존설치 마루(7m*5m*0.3m)	원안가결	'20.03.10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경남 양산 (○○○)	<input type="checkbox"/> 경비실(종합상황실) 정비(변경허가)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10m 이격) ○ 사업내용 - 경비실 증축면적 증가 · (당초)11.4㎡ → (변경)14.17㎡ - 협문 위치 변경 및 주고 높이 증가 · (당초)2.03m → (변경)2.19m - 담장 해체 후 재설치 길이 감소 · (당초)4.66m → (변경)1.62m - 판벽 설치 추가 · (신규)길이 2.00m, 높이 1.67m	원안가결	'20.03.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 (○○○)	<input type="checkbox"/> 창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74-4 외 25필지 * 제1구역 (보호구역에서 85m 이격) ○ 사업내용(B=12.0m, L=220.0m) - (토공)흙깎기 : 1,075m ³ , 흙쌓기 : 151m ³ , 터파기 : 352m ³ , 되메우기 : 183m ³ - (우수공)배수관 : 430m, L형측구 : 438m, 우수받이 : 24개소 - (오수공)오수관 : 403m, 오수맨홀 : 12개소, 오수받이 : 13개소 - (상수공)상수관 : 407m - (구조물공)축조블록쌓기(H=0.4~1.2m) : 169m - (포장공)ASP포장 : 1630m ² , 보도블록 포장 : 691m ² - (부대공)차선도색, 자재 및 중기운반	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사)	'20.02.24
보물 제274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전남 곡성 (○○○)	<input type="checkbox"/> 저온창고 이전 ○ 위치 :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m 이격)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이전 - 면적 : 40.5m ² (정면3칸, 측면2칸) - 구조 : 한옥목구조 내부 저온창고 설치 - 위치 : 공양간 건립 부지 배면으로 이전	조건부가결 (위치 및 배치 조정 보완)	'20.02.24
보물 제408호 논산 쌍계사 대웅전	충남 논산 (○○○)	<input type="checkbox"/> 계류보전 사업 ○ 위치 :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13-1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5m 이격) ○ 사업내용 : 계류보전 사업 - 사방댐 1개소 : 상장24m, 하장17m, H=2.5m - 큰돌(세워)쌓기 : H=1.5~4.3m, A=477m ² - 큰돌바닥막이 5개소 : H=1.0m, B=3.0~4.0m - 막돌(세워)쌓기 : A=25.9m ² , H=0.7m - 골막이 1개소 : H=1.5m, 상장14.0m	조건부가결 (현지조사 후 자문의견에 따라 보완 후 시행)	'20.03.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통전	경북 안동 (○○○)	<input type="checkbox"/> 도로선형개량 공사 ○ 위치 :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m 이격)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공사 - L=570.0m, B=0.2~16.2m - 콘크리트포장 A=1,223.6㎡, L=570.0m - 옹벽블록 H=2.0~3.0m, L=36.0m	조건부가결 (절·성토 부분을 최소화하여 사업 시행)	'20.03.10
보물 제364호 나주 서성문 안 석등	전남 나주 (○○○)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 위치 : 나주시 반남면 고분리 747 국립나주박물관 ○ 내용 : 습식탁본 ○ 방식 : 표면세척 후 종이를 대고 분무기를 이용해 부착 기포를 눌러서 제거한 후 먹방망이로 채탁 ○ 목적 : 특별전 출품을 위한 탁본	부결 (문화재 훼손 우려)	'20.03.10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